참여율 저조… 광주·전남 '의료대란' 없었다

■ 의사협회 집단 파업…지역 표정

광주·전남 의원급 1746곳 중 210곳만 집단 휴진 동참

24~29일 전면파업 예고…환자 '진료공백' 불안감 여전

의사협회의 집단 파업에 광주지역 의원은 4%, 전남은 19%가 참여해 참여율이 낮은데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참여가 없어 의료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10일 집단 휴진에 들어갔지만 대다수 광주·전남지역 병·의원들이 진료에 나서면서 지역민들의 큰 불편은 없었다. 의협은 그러나 오는 24일~29일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환자들 사이에서 진료 공백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의원급 의료기관은 1746곳 중 12.02%인 210곳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휴진율 29.1%(2만8691곳 중 8339곳)보다 크게 낮은 수치로, 광주의 경우 854곳 중 36곳(4.22%)만 참여했고 전남은 892곳 중 174곳(19.50%)이 휴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에선 A피부과·D성형외과·N의원·J정형외과·K산부인과 등이 '개인 사정으로 휴진에 들어간다' 또는 '원장이 아파 휴진한다'는 문구를 달고 휴진에 들어갔다.

일부 의원들은 오전 진료를 마치고 오후에 휴진하는 방식으로 의협 집단 휴진에 동참했다. 집단 휴진에 참여키로 한 광주시의사협회 결정에 따르면서도 각 구청 보건소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조선대병원과 광주보훈병원은 일부 전공의들이 휴진에 들어갔으나 교수진과 일반의가 추가로 투입되면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보건소측은 집단 휴진에 나선 의원들이 업무개시명령 조치 등을 우려,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집단 휴진한다'는 문구 대신, '개인 사정으로 휴진한다'는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도는 병·의원들의 휴진으로 겪게 될 시·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9곳의 시·군·구 보건소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했다. 다만, 집단 휴진에 아예 불참한 고흥·보성·강진·장성 등 8개 시·군의 보건소는 오후 6시까지 정상 진료했다.

시·도는 휴진에 참가한 병·의원에 대해서 강제 조치인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이날 254곳의 의원이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다. 현행 의료법상(제59조)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땐 의료인·개설자에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는 업무정지(15일) 또는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광주지역 일선 보건소 관계자는 "휴진한 의원들이 많지 않아 시민 불편이 크지 않았지만 24일 이후 전면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시민 불편이 불가피한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오후 8시까지 진료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돌입하자 10일 광주 북구보건소가 의원 휴업에 따른 주민 불편을 감안, 출입문에 '보건소 오후 8시까지 진료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인 채 진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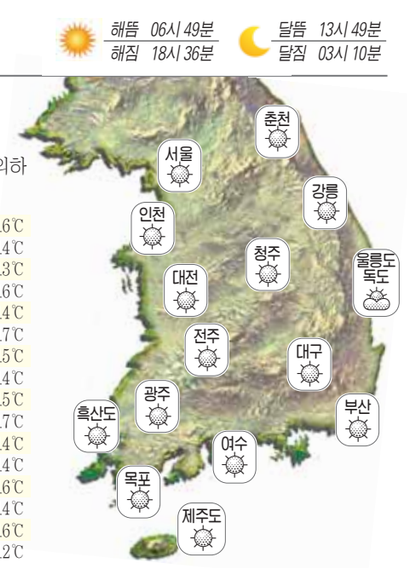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49분 해짐 18시 36분 | 달뜸 13시 49분 달짐 03시 10분

미세먼지 '보통'

건조한 날씨 속 화재에 유의하세요.

광 주	맑음	-3/16℃
목 포	맑음	-1/14℃
여 수	맑음	1/13℃
나 주	맑음	-6/16℃
완 도	맑음	-1/14℃
구 례	맑음	-5/17℃
강 진	맑음	-5/15℃
해 남	맑음	-6/14℃
장 흥	맑음	-6/15℃
순 천	맑음	0/17℃
영 광	맑음	-5/14℃
진 도	맑음	-3/14℃
전 주	맑음	-4/16℃
군 산	맑음	-3/14℃
남 원	맑음	-6/16℃
흑산도	맑음	3/12℃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먼바다	남서~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먼바다	남서~서	0.5~1.0m

체감온도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매우높음	매우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먼바다	남~남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먼바다	남~남서	0.5~1.5m

	밀물	썰물
목포	10:28 22:31	03:21 16:38
여수	06:03 18:24	12:36 00:0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2(수)	13(목)	14(금)	15(토)	16(일)	17(월)
날 씨						
최저/최고	4/13	6/9	1/9	0/13	2/14	3/15

'쓰레기 투기' 칼빼든 구청

남구, 수천만원 들여 관내 13곳 최첨단 CCTV 설치 단속키로

"아직도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리세요?"

쓰레기 불법 투기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급기야 지자체가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최첨단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기로 했다.

광주시 남구는 11일 불법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해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경고방송과 함께 고화질 블랙박스에 화상을 녹화할 수 있는 최첨단 CC-TV를 관내 양림동, 방림동, 주월동 등 모두 13곳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클린 지킴이'라 이름 붙은 이 단속 장비를 구입, 설치하는데 남구는 모두 2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설치 예정인 이 CC-TV는 인체감지 센서가 달려서 쓰레기를 몰래 버리기 위해 일정 거리에 접근하면 "불법투기 감시지역입니다. 촬영주의. 불법투기시 과태료 100만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방송이 나오게 된다.

이와 함께 360도 회전할 수 있는 LED 전광판은 주변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출 수 있고, 일반 CCTV 화질보다 2~3배 뛰어난 500만 화소급 블랙박스가 이를 녹화한다. 얼굴 판독이 훨씬 용이해진 것이다.

남구는 주민센터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양림동 그린원천 앞, 방림동 방림초등학교 앞, 사직동 대성초교 앞, 백운동 벽산아파트 인근 언덕 등 쓰레기 불법 투기 활동이 자주 벌어지는 곳에 장비를 설치하기로 하고, 오는 18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광주시 남구 관계자는 "설치 이후 쓰레기 투기근절에 효과가 있을 경우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예비군훈련 잘 받으면 집에 일찍 간다

올해부터 조기퇴소제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이 더욱 편리해지며 훈련을 잘 받는 예비군은 조기에 훈련을 마치고 퇴소하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10일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을 과학화, 현대화된 장비로 더욱 실전적으로 진행하되 예비군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실전적이면서도 성과 있는 훈련을 위해 '측정식 합격제'와 '조기퇴소제' 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부대가 마련한 훈련평가 점검표로 개인별 훈련 수준을 측정·평가하고, 합격하는 예비군은 2~3시간씩 조기에 훈련을 마치고 퇴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선 평가, 후 보완교육제'를 올해 도입한 뒤 사단별로 시범 적용, 평가 합격자는 휴식을 취하는 대신 불합격자는 집중 교육을 하는 등 예비군 스스로 훈련 참여 의식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소집점검훈련 참가 예비군에 대한 교통비 5000원도 새로 지급되며, 훈련 중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투복 상의를 하의 밖으로 내어 입는 것도 허용된다. 특히 올해 1년차 편성 예비군에게는 교육과 회의, 각종 시험 등 부득이한 사유일 때 연 6회 훈련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 농·어업 종사자도 2회 연기할 수 있다. 일부 후방지역 부대에서 사용 중인 카빈 소총도 2017년까지 M-16, K-2 소총으로 모두 바꿀 계획이다. /연합뉴스

헌재, 광주서 찾아가는 '지역상담실' 운영

내일부터 사흘간 시청민원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광주에서 찾아가는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을 연중 운영한다.

헌법재판소는 12~14일 광주시 민원실에서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을 개설·운영키로 했다.

지역상담실은 원거리에 거주하는 국민이 헌법재판 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설명하고,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 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한 기본권 보호 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역상담실에는 부장급 헌법연구관과 서기관 이상의 상담관이 팀을 구성해 헌법재판 절차를 비롯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진표기자 lucky@

헌재 광주 지역상담실 운영계획

구분	광주지역 (매월 둘째 주)	비고
3월	12일(수)~14일(금)	- 상담시간
4월	9일(수)~11일(금)	수요일:14:00~17:00
5월	14일(수)~16일(금)	목·금요일:10:00~17:00
6월	11일(수)~13일(금)	(점심시간:12:00~13:00)

광주 동구 옛 위생매립장 79억 들여 체육관 짓는다

광주시 동구 남문로 옛 위생매립장에 배드민턴과 탁구, 배구를 즐길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된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10일 오후 동구 남문로 옛 위생매립장을 현장 방문해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계획을 밝혔다.

동구 다목적체육관은 오는 2015년 초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79억원을 투입해 부지 1만3000㎡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건설되며, 이 체육관에는 배드민턴장을 비롯한 탁구장, 배구장 등이 들어선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과 김영길 동구생활체육회장 등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